

# “맞아도, 안맞아도 걱정” 백신 부작용 ‘불안’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 60~64세 35.6%

덴마크, 노르웨이 등 AZ 백신 접종 중단

국내에서도 AZ 백신 1차 접종 사망자 발생

전문가 “고령자일수록 접종 적극 권장”

“부모님께서 코로나19 백신이 불안하다며 맞아도 되냐고 물으시는데 확실하게 답을 못 드렸네요.”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여러 이상 증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고령층일수록 감염으로 인한 위험보다 백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나서서 보상과 안전성은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70~74세 예방접종 사전 예약률은 60.9%, 65~69세는 52.7%, 60~64세는 35.6%에 그쳤다.

이처럼 접종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발생하는 혈전 생성이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 때문

이다.

최근 유럽 각국은 특정 연령대에서 혈소판 감소 동반 혈전 증상이 연이어 보고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덴마크에 이어 노르웨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국 접종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이 발열과 메스꺼움, 두통, 오한 등 이상 반응을 보이더니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주 아버님을 맞아 부모님을 뵈고 왔다는 남모(31)씨는 “부모님께서 맞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기저질환이 있어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신정은 첫날 했지만 다른 반응들은



좀 살펴보고 싶어서 6월 하순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모(29)씨는 “부모님께서 아직 접종 예약을 하지 않았다. 아직도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 거냐고 물으신다”며 “최근 나오는 부작용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힘들다. 혹시나 부작용이 부모님께 나타날까 두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으며, 또 사망에 이를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일수록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적극

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백신 이상반응이 적다”며 “접종을 통해서 중증질환이나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이득이 압도적으로 큰 그룹으로 기저질환 때문에 미룬다고 하는데 오히려 꼭 맞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자들은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적고 반응 자체도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며 “감염에 따른 위험이나 이득을 따지면 고령자의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여수소방, 임야화재 예방 위한 드론감시단 운영

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여수시 임야지역 주변에서 잦은 화재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봄철기간 중(3월 ~ 5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드론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소방서에서는 여수드론교육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어 드론교육원과 여수소방서 직원들이 함께 화양면과 돌산읍 일대를 나눠 순찰하고, 화재예방 활동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자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드론감시단은 총 드론 4대를 운영하여 2개 구역에서 원거리 지역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인력과 시간비용이 줄어들어 아주 효과적인 평가를 받으며 운영중에 있다.

김창수 서장은 “봄철기간 중 건조한 날씨 속 여수시에서 산불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현재 대형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한 상황이다.”며, “화재예방 활동을 통해 공중에서 입체적인 활동으로 단 한 건의 산불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 광양소방, 안전한 민박 펜션 위한 안전관리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봄철 여가인구의 증가로 인한 농어촌 체험형 민박 및 펜션 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내 안전한 민박 펜션에 대해 봄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봄철 기간 동안 안전관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에서는 광양시청 농업 지원과와 협의를 통해 관내 민박 및 펜션 70개소에 대해 ▲ 기초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비상조명등, 유도등 등을 보급하고 ▲ 화재대응 매뉴얼 등을 배부 ▲ 관계자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농어촌 정비법 적용을 받는 민박 시설은 소방시설 미비치 등 화재에 취약하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펜션은 화재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용객은 안전관리수칙 준수 및 반드시 비난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 완도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도서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인격감탈 행위 △해수산업체, 외국인 선원의 인권 침해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이다.

완도해경은 이번 단속기간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 조사 할 예정이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도 함께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섬 지역의 해수산업체,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에서는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지난 10일부터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완도=이민혁 기자

## “사각지대 없애라” 광주, 스터디카페 등 코로나 방역

오는 23일까지 4800여 곳...시·교육청·자치구 합동

광주시에 코로나19 단속 사각을 없애기 위해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을 중심으로 특별방역에 나선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3일까지 교육청 등록기관인 학원, 교습소, 독서실과 자유업종인 스터디카

페 등 4856곳에 대한 특별방역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 특별방역 점검주간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 가족, 또래 집단 등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

해 추진됐다.

시는 시 교육청, 5개 자치구와 함께 5개팀 15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환기·소독 실시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 광주 백화점 영업직원 확진...360여 명 전수검사

광주의 한 백화점 입점업체 영업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돼 방역당국이 같은 층에 근무하는 종사자 36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19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역 모 백화점 영업직원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자진 방문한 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2641번째 확진자로 아직 구체적인 감염 경위를 알 수 없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휴무 중이어서 최근 매장 방문 이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A씨가 근무하는 백화점 내 긴급 소독을 벌이는 한편, 같은 층에 근무하는 종사자

360여 명에 대해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같은 매장에 근무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동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다.

또 이날 현장 위험도 평가를 통해 추가 방역 조치 여부를 검토한다.

서선욱 기자

## 영암소방, 공시장 '화재안전 사진 전시회' 추진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용접불티로 인한 건축 공시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시장 관계자 및 근로자의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공시장 화재안전 사진 전시회'를 추진한다.

영암소방서는 화재 사고 사진과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을 담은 대형 배너를 제작, 관내 대형 공시장 2개소에 사진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관리감독자는 대형 배너를 활용하여 공시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시장 화재안전 및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을 교육하게 된다.

공시장 관리 감독자들도 사진 전시회에 크게 호응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